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

3월 30일 화요일	보 도 자 료	생명의 땅 으뜸전남

실과	축산정책과	과장	박 도 환	팀장	이 두 규	☎	286-6510

전남도,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54억원 1차 지원!

-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, 후반기 2차분 추가 지원 -

□ 전라남도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(1차분) 254억원을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508억원을 지원하였다.

□ 지원대상은 한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, 오리, 사슴, 말, 양 등의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을 받은 축산농가(법인)이며,

○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우·낙농 6억 원, 양돈·양계·오리농가는 9억 원, 흑염소·사슴·말·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이고, 농가당 산출금액은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

○ 지원조건은 연리 1.8%,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.

□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·군에 바로 신청하면 되고, 사육두수·대출잔액 등을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 농·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□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금년 3월 배합사료 가격이 약 10% 상승하여 kg당 42원에서 52원이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,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이번 배합사료 구매자금(1차)이 필요한 농가는 시·군에 꼭 신청해 주실 것”을 당부했다.

○ 앞으로 금년 후반기에도 배합사료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배합사료 구매자금 2차분에 대해서도 금년 7월중에 시·군 수요조사를 통하여 약 2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